

예수 성탄 대축일

제1독서 : 이사 52,7-10

제2독서 : 히브 1,1-6

복음 : 요한 1,1-18

순정이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 본 적이 없다.”
(요한 1,5)

성탄메시지

왕, 대통령, 그리고 아기 예수



이병호 주교 / 천주교 전주교구장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저는 먼저, 오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가정에
은총과 평화를 가득히 내려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는 다른 어느 해와도 다른 감회를
느끼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 세계가 너무나
어둡고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헤매는 모습이 역력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전직 대통령들이 연이
어 들썩이나 엄청난 죄목을 쓰고 철창 속으로 갇혀
들어가는 모습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깊이 되돌아
보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들이 현대의 왕이라 할 대
통령의 직분을 수행한 이들었다는 점에서, 이 기회에
왕직의 참다운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마태오 2,2)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찾아온 사람
들은 그분을 ‘유다인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돌아



가실 때,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신 그분께 붙여진
마지막 호칭도,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마태오
27,37)였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유대인 뿐
아니라 온 세계 전인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왕권을 주셨습
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권을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주겠다.”(루가 22,29)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신앙인이 모두 왕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36항). 그
러므로 우리는 왕입니다. 실상 하느님의 외아드님께
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사람들을 모두 왕으로 만
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우리 역시 왕직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죄로 철창에 갇혀 들어가는 전직 대통령들의 모습을
우리가 남의 일로 치부하고 말 수는 없습니다. 왕직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그 결
과가 어떤 것인지를 거기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불행도 그 출발은 그 자리와 직분에 대한 생각이 잘
못된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은 몇 사람들에게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젊은 시절 야고보와 요한(마르 10,35-45)의
이야기는 자신의 자리와 직분에 대해서 흔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
다. “선생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를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하고 부탁하는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너
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느냐?”하고

하느님의 외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사람들을 모두
왕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으심으로써 예수께서는 일정한 자리와 직분에 관한 그들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 되어 있음을 던지시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는 모든 자리와 직분 가운데에서도 표본인 왕직을 잘못 수행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주심으로써, 사람들이 자기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그 잘못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왕이나 대통령에서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회사의 사장에서 수위에 이르기까지, 사다리처럼 짜여진 자리와 직분의 구조 안에서 각 사람은 일정한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들의 통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전제군주 시대에는 왕이 주인이었고 모든 백성은 신민일 뿐이었습니다. 왕은 통치자였고 백성은 통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의 모상을 따라 창조되어 아무도 범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갖는다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어렵게 도달한 민주주의 시대에 와서는, 글자 그대로 백성이 주인이며 한 나라의 행정 수반은 그 국민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심부름해야 할 사람들의 대표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짓밟고 권모술수나 무력으로 그 자리를 탈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이 마음속에서부터 그를 따르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강제로 지배하고 권력으로 내리누르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자연히 온 나라의 질서가 뒤틀리고 지배와 강압의 힘만이 사회 전체를 휩쓸어,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대신, 잡아 먹고 먹히는 야수의 세계를 닮아갑니다. 이것은 정치 분야에서 뿐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사회 구석구석

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고장난 마음은 자신의 자리와 직분을 남에 대한 봉사의 기회로 이용하기 보다는, 정반대로 남을 지배하고 힘으로 내리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경향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3. 하느님의 아드님께서서는 이런 세상을 고쳐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 놓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세상을 내다보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대가 새끼양과 어울리고 표범이 숫염소와 함께 뒹굴며 새끼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으리니 어린아이가 그들을 물고 다니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를 가나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다시는 없으리라.”(이사야 11,6-9) 이것은 물론 숲 속 야수의 세계에 나타날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취와 비리, 음모와 폭력 등으로 인하여 숲 속의 세계를 닮았던 인간세상이 바뀌어 사랑과 조화, 이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감도는 따뜻한 세상으로 변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리스도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죽음에서 구하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정신 혁명을 이루기 위한 지렛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다리를 거꾸로 세우는 일 이었습니다. 사다리 모양의 구조로 짜여진 사회 안에서 어떤 위치,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이든지, 그 자리와 직분을 남에 대한 봉사의 기회로 활용하는 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착취하고 지배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바꾸는 일,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

익산시 귀금속판매센터
우성주얼리
예물 및 각종 원석 가공판매
김 순 희(세실리아)
익산시 영동동 224-2
☎ (0653)835-1660

(주)타운젠트 중앙동점
LG 패션
예복 대여 · 30%세일
유 성 수(시메온)
박 선 숙(안젤라)
중앙동 풍년제과 맞은편
☎ 88-7038

(주)이삭 온돌침대「파워스톤」
수맥방지 및 치료용 건강돌침대
(공업진흥청 전자파실험필, EMI)
박천운(베드로) 임선재(테레사)
전북대리점
☎ (0652)75-9824, 77-6587
호출기 012-687-8842
휴대폰 011-651-7124

(주) 중앙교육연구원
· 구본(국어,수학,영어,일어) : 방문지도
· 빨간펜(전과목, 논술) : 칠삭지도
· 구본, 빨간펜 회원모집
판매 하실 분 모집
백 유 공(테레사)
☎ (0652)223-2147
호출기 012-688-2147

봉사와 희생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왕권만이 이기주의와 폭력으로 병들어 있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왕의 면모가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곳은 십자가이며, 왕의 영광이 비치는 그분 옆자리란 그분처럼 남을 위해 죽는 자리임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그 자리야말로 참으로 사는 자리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루가 17,33)이기 때문입니다.

4.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로데 왕은 자신의 왕권에 도전해 올 이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여 두려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권은 헤로데가 두려워 할 그런 왕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헤로데의 왕권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사랑과 봉사로 나타나는데 반해, 헤로데의 왕권은 군대와 무력으로 나타났습니다. 헤로데는 예수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엄청난 무력을 동원하여 수많은 어린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누가 참된 왕이며, 어느 쪽이 승리했는지는 명백합니다. 겨자씨처럼 작고 가냘팠던 예수님의 나라는 전 세계 온 인류의 절대 다수가 그 안에 깃들일 만큼 성장한 반면, 헤로데의

왕국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식의 왕권. 그 뒤를 이은 우리 모두의 왕권. 그것만이 이 세상을 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구유에서 삶을 시작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치신 분은 그 모습 자체로 이렇게 말씀하시며 당신의 뒤를 따르도록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나는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와 있다.”(루가 22,27)

봉사와 희생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왕권만이 이기주의와 폭력으로 병들어 있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무력과 오만으로 병든 세상을 구원하는 힘은 꺼질듯 연약하고 비천한 아기 예수의 손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은 로마제국의 무력을 다 동원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 다. 이 작은 빛은 이 세상의 어둠을 다 모아 짓눌러도 꺼지지 않았습니 다. 요한은 말합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 본 적이 없다.”(요한 1,5)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다가오는 해에도 이 빛이 여러분과 각 가정을 비춰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심부름하는 이 로 오신 주님을 닮음으로써 참다운 왕권을 수행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합니다.

요심이 김병오

예수님은 왜 이세상에 태어나셨지? 이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딱당히 체면상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적당히 거짓말을 하자

그 당시에는 산부인과 병원이 없어서...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오ργαν,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 교육 및 연주 지도 상담
동서 관통로 다가고 입구
김태우(알풍소)
☎ 88-7717~8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소 모임
초대 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수도생활을 하고자 하는 고졸 이상의 미혼여성
· 일시: 12월31일 오후 2시~5시
· 장소: 삼랑진본원 (0527)52-4241
· 준비물: 신구약 합본 성서

차량대여 및 임대전문 영업회사
(유) 국민렌트카
박일천(요한)
신역에서 진안신 중간 럭키아파트 앞
☎ 본사: 242-4442, 242-4717~9
군산영업소: (0654) 467-6578~9

서울방사선과의원 (종합건강검진센터)
전신C-T촬영·일반X-선촬영
골다공증 측정·전신초음파촬영
유방촬영·임상병리검사
박인숙(아나다시아)
구 금암분수대 로타리
☎ 78-1312~3

96년 명회원 장애인 직업 재활원생 모집
1. 교육과목: 편물과, 양재과, 공예과, 제도과, 보호작업 2. 교육기간: 2년
3. 지원자격: 만18세이상 만 30세 미만의 본인 신변처리가 가능한 장애인(월체어 사용자도 가능함) 4. 제출서류: 입학원서(본원에 비치),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수첩 사본 각1부 5. 제출기간: 96년 1월 18일 목요일까지 6. 면접일: 96년 1월 19일 금요일 오후 1시 7. 특전: 교육비 면제, 기숙사 완비, 통학버스 운행, 수료 후 본원 자립장에 입소할 수 있음.
8. 연락처: 사회복지법인 명회원 ☎ (0345) 406-1134~6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여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 841-2496, 855-8653

성탄과 함께

문치상(비오)



주여! 당신을 기다리는 동안 세상은 온통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동시에 구속되는 건국 이래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으니까요.

누구 탓일까요. 그들 두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했을 때 우리 모두는 어디에서 있었고 무엇을 했나요. 변변한 저항은 고사하고 그들에게 이끌려 다녔고 찬양고무까지 서슴치 않았음을 당신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완전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광주사태라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많은 사람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입을 봉쇄시켰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죄는 죄대로 가며 남을 괴롭히고 자기는 편하게 살 수 없다는 천리가 살아있음을 뒤늦게나마 만천하에 보여 주고 일깨워 준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체증치료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홍청대며 먹고 마시는 일로 세월을 보내거나 쓸데없는 세상 걱정애 마음을 빼앗기거나 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시오. 그 날이 별안간 당신들에게 닥쳐 올지도 모릅니다.”(루가 21, 34)

지금야 바로 그 때인 것만 같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아야 될 옛날의 처절한 모습과 그들의 후안무치한 행위를 봐야 했습니다.

분명 우린 하늘의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싸여 오시는 당신을 기다렸건만 이 무슨 해괴망칙한 일들이 당신을 대신해서 나타났을까요. 무엇이 무엇인지 어안이 병병하고 기가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서 몸과 마음도 깨끗이 못한 채, 통회와 뉘우침의

사랑도 본받지 못한 채 올해의 대림시기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러고도 우린 당신의 탄생을 기리는 이 밤을 맞았습니다. 당신의 참된 생명의 빛이 이 세상에 돌입한 오늘, 인류로부터 나시고 하느님으로부터 나신날, 당신께 바라는 기도는 끝이 없습니다. 당신의 찬란한 눈으로 이 어둠을 거두어 주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무참히 짓밟힌 참된 가치를 되살려 주소서. 당신의 포근한 가슴으로 교만한 야심을 정화시켜 주소서.

특히 우리 모두가 내 탓임을 알게 도와 주소서. 쏠씨는 대의원을 통한 간접선거라는 비민주적 방식으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盧씨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었습니다. 兩全분열 타기기는 하지만 어쨌든 국민이 선택한 적법 대통령이었음은 부인 못합니다. 우리가 그를 뽑을 때 그가 5·18의 주동자의 한 사람임을 몰랐습니까? 국민의 선택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여소야대의 소수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구국의 일단으로 3당통합의 깃발을 내걸고 그 여세를 몰아 역사의 심판과 함께 문민정부라는 게 탄생했지만 그후 모습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똑똑히 헤아릴 수 있는 해안을 당신은 주셔야만 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자이신 당신께서는 이제 당신 백성들이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홍청대며 먹고 마시고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서 헤어나도록 도와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